

다음 내용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봅시다.(파란색 글씨를 읽으며 인도하면 됩니다.)

오늘 해야할 일

1. 오늘부터 가족예배가 있는 날까지 매일 저녁 가족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1)온 가족이 함께 가족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 2)가족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 3)가족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지혜를 주세요.

2. 이번 주간 가족예배 순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알려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족들과 함께 순서를 정합니다.)

[기도]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기도를 준비하도록 인도자가 이야기 해줍니다. 기도내용은 순서지를 따라도 좋고, 순서자가 스스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말씀]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자 순서지를 보여주고 준비하도록 합니다.(인도자가 맡아서 해도 좋습니다.)

가족예배 10분전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예배시간이 10분 남았음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시작 10분 전에는 찬송가 연주를 틀어놓고 예배 장소를 세팅하여 가족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해요.]

가족예배 5분전

예배 장소 세팅이 끝났으면 성경책과 순서지를 준비하고 가족예배 장소에 모여서 각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가족예배를 준비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도 신경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가족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 도

기도순서자가(아빠, 엄마, 동생, 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매일 매일의 삶이 주님께 영광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기도자가 되어 기도를 준비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내용 또는 기도자가 준비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찬 송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음원 파일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말 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 [막 13:32-37절]

32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3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시는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면 언제 오실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정해놓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시는 시간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주인이 집안일을 맡기고 다른 나라로 떠났을 때에 깨어있는 종들과 같아야 합니다. 주인이 다시 올 시간을 알려고 하는 종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인이 떠나있는 동안 잠자고 놀다가 주인이 다시 올 때 일하는 척 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이건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종들은 주인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잠들어 있다가 잠든 채로 돌아온 주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은 깨어서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 받을 모습으로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당장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칭찬 받을 만한 모습으로 깨어서 예수님께서 맞이하실 수 있나요?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집안일을 맡긴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가꾸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족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가족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가족 한명 한명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선포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족 신앙스토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1. 당장 오늘 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해봅시다. 어떤 마음이 드나요?
2.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할 사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족미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족도 매일 아침 “마라나타”로 인사해봅시다.